

KMI 동향분석

VOL.38
2017 JULY

발간년월 2017년 7월(통권 제38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
(jwhong@kmi.re.kr/051-797-4721)

윤인주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mouthpiece@kmi.re.kr/051-797-4724)

최일선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ilsunchoi@kmi.re.kr/051-797-4727)

이정아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연구원
(pengyou35@kmi.re.kr/051-797-4726)

국내 최대 해양관광 목적지인 해수욕장이 부산의 해운대, 송정, 송도를 시작으로 올해 총 257개소가 개장했다.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천 5백만 명에서 지난해 1억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을 제정했고 지난 6월에는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의 정책 목표 중 하나는 방문객 50만 명 이상 해수욕장을 24개에서 50개로 늘리는 것으로 테마형 해수욕장 발굴을 통해 유명 해수욕장에 집중되는 이용객의 분산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주로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고 대부분이 특정 지역의 유명 해수욕장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기준으로 부산, 강원, 충남에 위치한 10대 해수욕장의 방문객 수가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이처럼 특정 해수욕장 방문 집중 현상에 따른 혼잡과 무질서, 환경오염으로 이용객의 스트레스와 불만족은 심각한 실정이다. 방문객 수 1위인 해운대 해수욕장에 작년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평일 4톤, 주말 8톤 수준으로 총 191톤이 발생했다.

지난 10년 동안 해수욕장 관련 언론 보도 키워드 검색 결과, 관광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키워드와 함께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안전사고, 성범죄 등 부정적인 키워드와의 연관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해수욕장은 그 동안 하계 휴가객의 해수욕이나 휴식, 풍경감상 등 비교적 수동적인 형태의

관광활동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해양관광 트렌드 변화와 함께 단편적인 목적으로 해안 지역을 방문하는 비율은 53.5%로 나타나 5년 전에 비해 31.7%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레크리에이션 체험 등 적극적인 형태의 활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은 6.4%에 불과해 특정 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한적한 해수욕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면서도 혼잡한 유명 해수욕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는 한적한 해수욕장의 시설과 교통 미비, 유명 해수욕장의 홍보와 편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수욕장 이용객을 전국적으로 분산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 관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방문객 집계에 치중되어 있는 국내 해수욕장 안내 정보 체계를 강화하여 해수욕장 혼잡도, 스포츠 및 관광시설 현황, 안전관리, 환경관리, 주변 연계 관광자원 등 이용객이 방문목적에 따라 해수욕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광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하계 휴가철 중심의 계절적 편중이 심한 해수욕장 이용의 다계절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놀이시설 보급을 통한 해양레저활동 다양화, 해양문화공원 활용, 지역별 테마 해수욕장 정비, 어촌마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행 해수욕장법 체제 상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계획이 부족하므로 지자체별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용하는 수익 창출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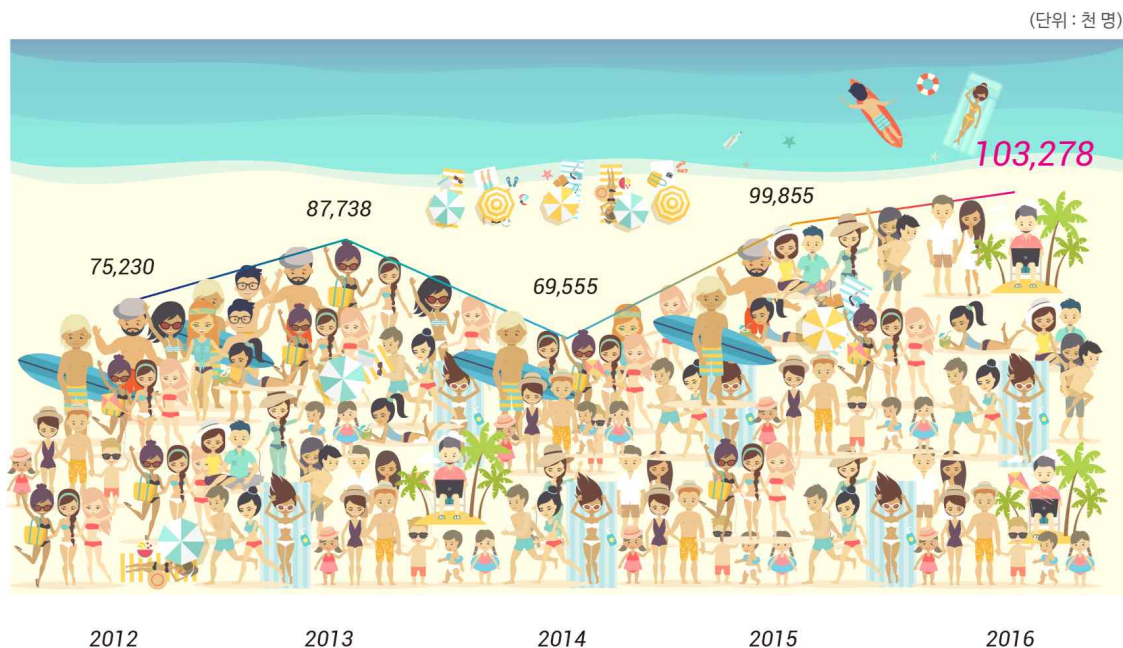
휴가철마다 해수욕장에서 불거지는 무질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부정적 이슈의 해소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국적으로 분산될 때 가능한 일이므로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해양관광 1번지, 해수욕장

■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중심지인 해수욕장 방문객은 꾸준히 증가

- 올해 해수욕장은 6월 1일 해운대-송정-송도를 시작으로 총 257개소가 개장하고 평균 약 44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60여개 해수욕장은 야간 개장을 실시함
-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 1억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단,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피서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해수욕장 방문객도 이례적으로 감소했던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전국 해수욕장 방문자수 추이 (2012~2016년)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관광·레저 실태 조사』, 2016.11, p. 29.

- 2016년 기준 지역별 이용 현황을 보면 해수욕장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나 방문객 수는 부산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강원과 충남을 합칠 경우 87%가 집중됨
- 해수욕장의 분포는 강원 92개소(35.9%), 전남 54개소(21.1%), 충남 33개소(12.9%), 경북 25개소(9.8%), 경남 24개소(9.4%) 등의 순임
- 방문객 수의 분포는 부산 4천 7백만 명(45.3%), 강원 2천 4백만 명(23.7%), 충남 1천 8백 만 명(17.7%)의 순임

- 방문객 수 기준 상위 10대 해수욕장도 부산 5곳, 강원 4곳, 충남 1곳이며 전년대비 3백만 명 정도가 더 방문하는 등 특정 지역, 특정 해수욕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됨
- 한편, 상위 10대 해수욕장 개별로는 7개 해수욕장 방문객 수 및 전체 대비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대천, 송도, 다대포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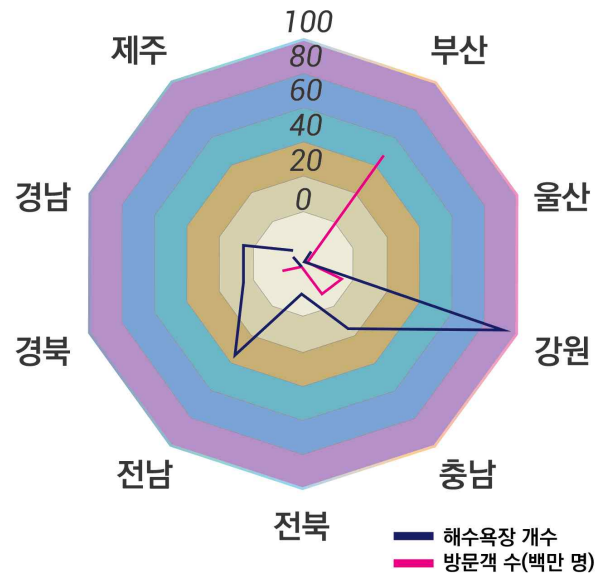
표 1. 2016년 해수욕장 이용 현황

(단위: 개, 명)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개수	비중	명수	비중
부산	7	2.7%	46,796,982	45.3%
울산	2	0.8%	2,242,851	2.2%
강원	92	35.9%	24,445,621	23.7%
충남	33	12.9%	18,254,252	17.7%
전북	8	3.1%	345,596	0.3%
전남	54	21.1%	1,543,630	1.5%
경북	25	9.8%	5,528,196	5.4%
경남	24	9.4%	780,519	0.8%
제주	11	4.3%	3,340,550	3.2%
합계	256	100.0%	103,278,197	100.0%

주: 2016년 기준 경기, 인천은 모두 미지정 상태임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그림 2. 2016년 해수욕장 이용 현황



주: 2016년 기준 경기, 인천은 모두 미지정 상태임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표 2. 해수욕장 방문객 수 기준 상위 10대 해수욕장 현황

(단위: 명)

2015년				2016년			
순위	해수욕장명	방문객 수	전체 해수욕장 대비 비중	순위	해수욕장명	방문객 수	전체 해수욕장 대비 비중
1	해운대	16,085,000	16.1%	1	해운대	14,497,500	14.0% ▽
2	광안리	13,108,000	13.1%	2	대천	12,477,000	12.1% ▲
3	대천	9,113,800	9.1%	3	광안리	11,946,010	11.6% ▽
4	송도	7,530,000	7.5%	4	송도	9,480,000	9.2% ▲
5	경포	6,375,694	6.4%	5	다대포	5,923,800	5.7% ▲
6	송정	4,702,000	4.7%	6	경포	5,837,700	5.7% ▽
7	다대포	4,332,300	4.3%	7	송정	4,289,002	4.2% ▽
8	낙산	3,939,952	3.9%	8	낙산	3,726,078	3.6% ▽
9	속초	3,540,117	3.5%	9	속초	3,515,274	3.4% ▽
10	망상	3,360,547	3.4%	10	망상	3,355,972	3.2% ▽
합계	-	72,087,410	72.2%	합계	-	75,048,336	72.7% ▲

주: 대천, 송도, 다대포의 경우 2015년 대비 방문객 수가 증가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14년 해수욕장법 제정과 '17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관리 체계 정비

-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해수욕장을 지정 고시하여 관리·운영함
-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은 국민안전처, 환경관리지침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고시함
 - (안전)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며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정보를 제공
 - (환경)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전·후 및 개장 기간 중 격주 1회 이상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백사장은 개장 전 1개월 이내 토양질 검사 실시
-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은 ‘즐겁고 안전한 국민 해양휴양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구축’과 ‘해수욕장 기반의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함
 - 레저활동형을 비롯한 테마형 해수욕장 발굴을 유도하고 2025년까지 해수욕장 연간 방문객을 1.5억 명으로, 50만 명 이상 방문하는 해수욕장을 24개에서 50개로 늘리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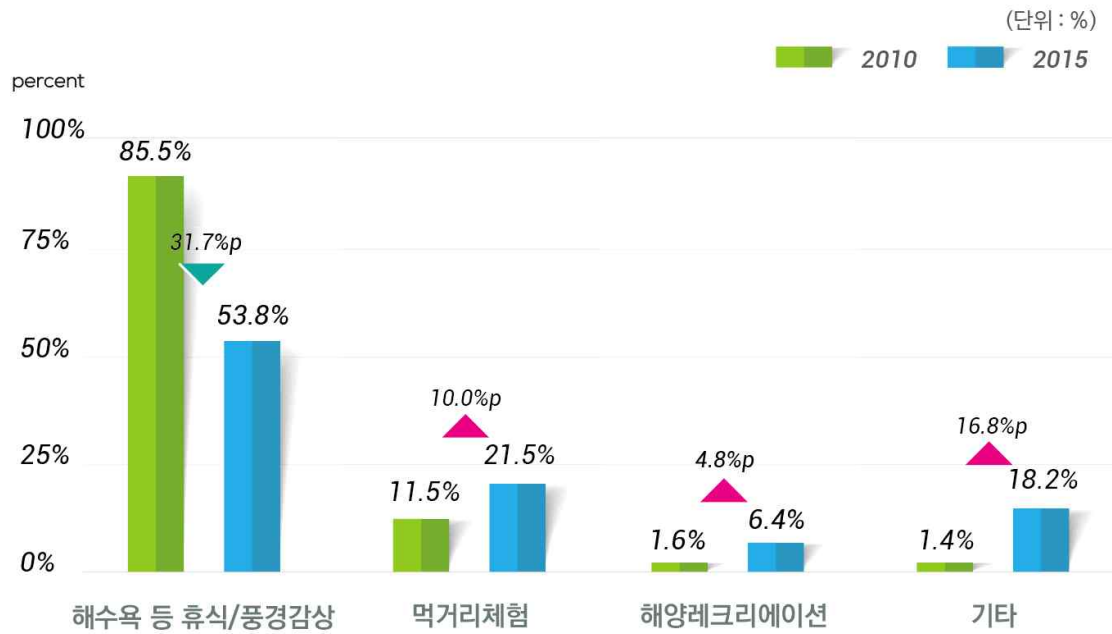
-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법에 따라 해수욕장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우수해수욕장을 지정하고 있으며 향후 해수욕장 정보,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 등을 제공하는 해수욕장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임
- (평가) 해양수산부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해수욕장을 포함해 2016년에는 여름철 바다여행지 10선 중 가족과 즐기는 해수욕장 4곳이 선정됨.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청정 해수욕장 20선을 선정하여 발표하기도 함
- (정보) 현재로서는 국립해양조사원(<http://m.khoa.go.kr>)에서 날씨예보와 함께 조석, 조류, 수온 등의 해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해양안전지도 어플 ‘안전해(海)’를 통해 17개 지역의 이안류나 갯고랑 등 위험구역을 알림. 18개 주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주변 고층 건물의 연안침식 모니터링용 CCTV를 통해 실시간 해수욕장 영상을 제공함

관광 목적지 매력도 감소로 해수욕장 이용 활성화 한계

■ 해수욕장 이용객 집중과 만족도 감소로 관광 목적지로서의 매력도 감소

- 2015년 조사에서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은 주로 해수욕이나 휴식, 풍경감상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먹거리 체험과 해양레크리에이션을 즐기기 위해 해안지역을 여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해수욕이나 휴식, 풍경감상 등 비교적 수동적인 형태의 활동을 목적으로 해안지역을 방문한 비율은 53.5%로 나타나 5년 전에 비해 31.7%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해양레크리에이션 등 적극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방문한 비율은 4.8%포인트 증가했지만 6.4%에 불과해 특정 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비율은 아직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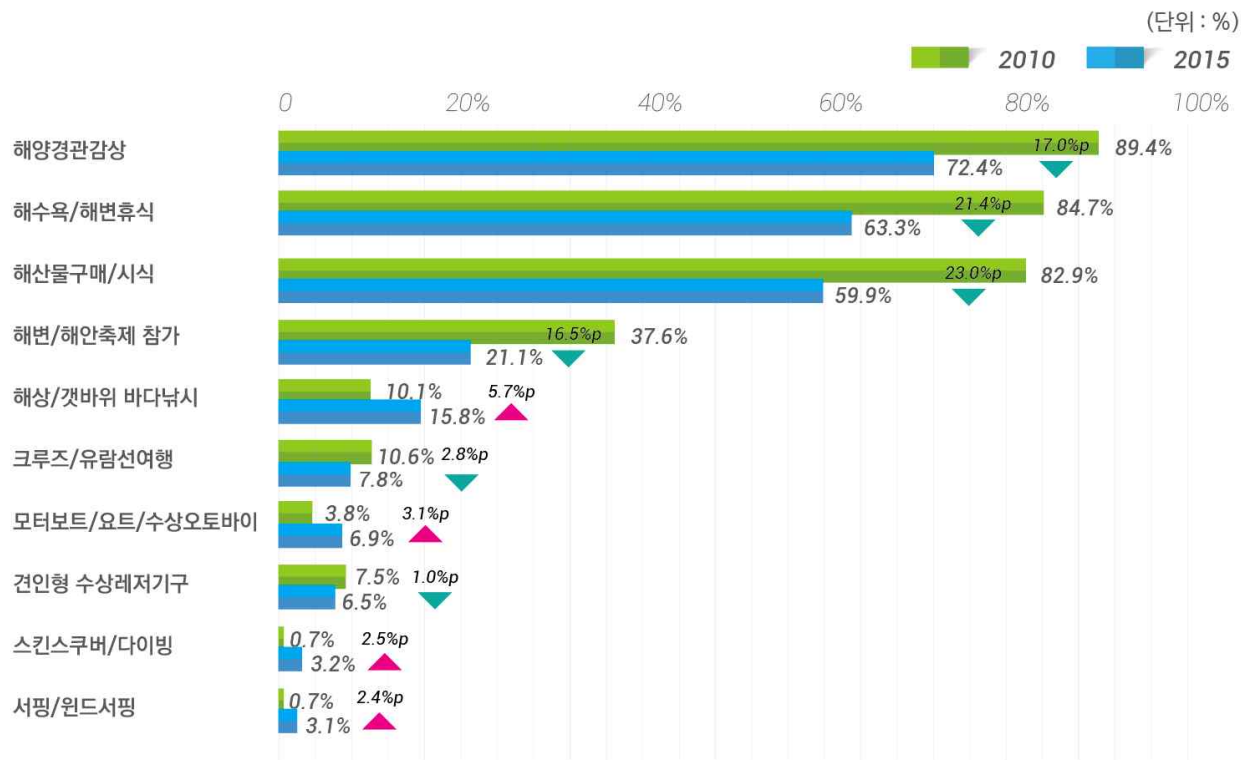
그림 3. 해안지역 관광 목적 변화



자료: 국토해양부(2011),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홍장원 외(2015), 해양레저·관광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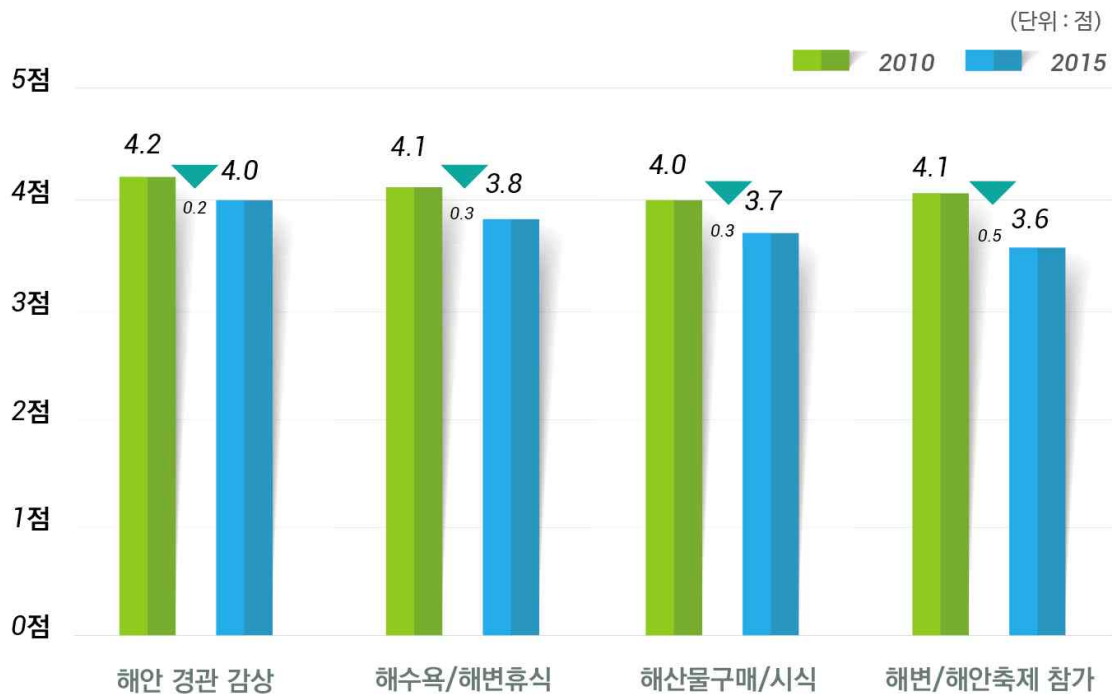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해안 경관 감상과 해수욕/해변휴식 활동 등 해안지역, 특히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관광 활동 참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만족도는 전체 해양관광·레저 활동 만족도 평균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며, 2010년에 비해 2015년 만족도가 감소함

그림 4.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해양관광·레저 활동(2010년, 2015년)



자료: 국토해양부(2011),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홍장원 외(2015), 해양레저·관광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5. 해수욕장 기반 해양관광·레저 활동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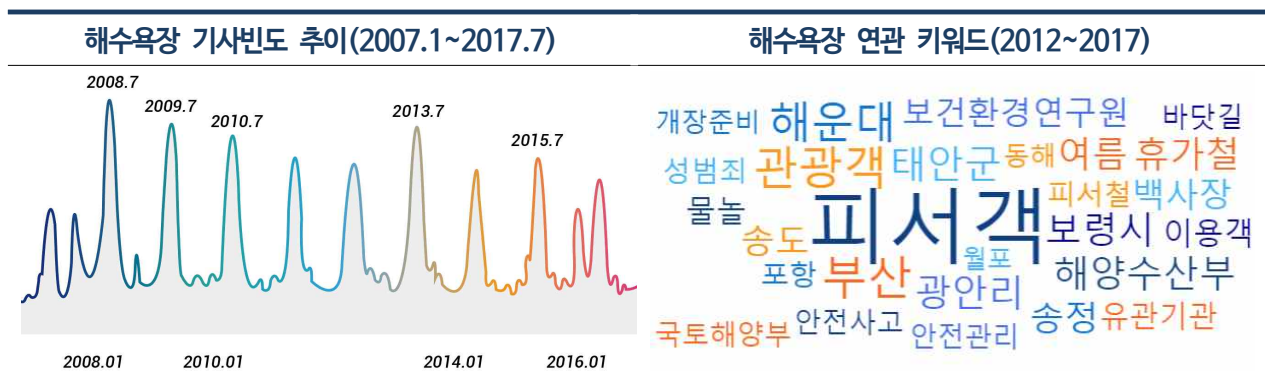


자료: 국토해양부(2011),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홍장원 외(2015), 해양레저·관광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해수욕장 이용행태와 관련된 부정적 이슈 지속

- 해수욕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여름 휴가철인 6~8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유명 해수욕장과 안전사고, 성범죄 등이 연관 키워드로 추출됨

그림 6. 월별 해수욕장 관련 기사빈도 및 연관 키워드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www.bigkinds.or.kr>, 2017. 7. 12. 검색

- 지난 10년간 해수욕장 이미지에 대한 기사는 관광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립·긍정적 키워드 및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불친절 등 부정적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음
- 또한 해수욕장 이용 시 불만사항으로 피서객 집중, 바가지요금과 주차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등 이용객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음
- 해수욕장 방문객은 인지도가 높아 사람이 많이 찾는 유명한 해수욕장보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적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객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과 무질서로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호소함

그림 7. 해수욕장 관련 기사의 연관 키워드 및 선호도



자료: (좌, 중)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www.bigkinds.or.kr>, 2017. 7. 12. 검색

(우)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해수욕장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개편 필요

- 국내 해수욕장을 안내하는 문구는 ‘일일 최대’, ‘국내 최대’ 등의 홍보에 집중되어 있고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한 관리 개선방안은 다양하지 못한 실정임
- 2016년 해운대 해수욕장의 방문객 수는 개장기간 92일 동안 14,497,500명(입수객 907,800명)으로 나타남. 1일 평균 방문객은 157,582명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의 면적을 고려할 때 이용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
- 해수욕장 방문객 통계는 홍보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혼잡도 표시 및 관리, 안전관리, 환경 관리 수단과 연계하여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해수욕장 방문객의 이용편리 제고, 이용객 분산을 위해서는 교통·주차환경, 혼잡시간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각 해수욕장별 조석, 기온, 수온, 자외선 지수 등에 대한 날씨정보 등 이용정보 제공이 필요함
- 해수욕장 내 상업시설, 임대시설이 해변이나 도로와 인접해 있어 해변 수질관리, 이용자 안전관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고 이용객의 쓰레기 투기, 환경훼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해수욕장 공간관리와 이용자 인식 개선도 필요한 시점임
- 여름철 해운대 해수욕장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는 돗자리, 술병, 담배꽂초, 치킨 뼈 등이 평일 4톤, 주말 8톤 수준이고 2016년에는 총 191톤이 발생함

그림 8. 국내 해수욕장 이용전경



자료: (좌)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직접 촬영 (우)포항 구룡포 해수욕장, 직접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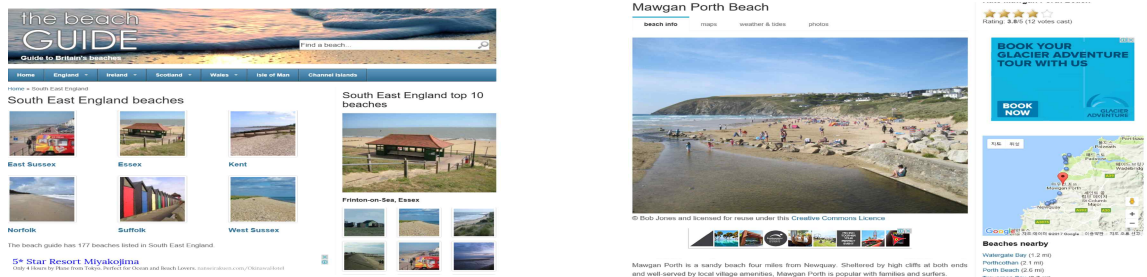
국내 해수욕장 경쟁력 개선

■ 해수욕장 안내 정보 체계의 개선

- 해수욕장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해수욕장에 대한 단순 안내를 넘어 이용객을 위한 관광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국내에는 해수욕장의 명칭이나 위치 외에 편의시설, 관광활동, 이벤트 및 축제 등 관광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사이트가 부재함
- 영국은 'the beach Guide'라는 해수욕장 안내 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지역의 1,500여개 해수욕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수욕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사질 특징, 안전요원 유무, 애견 출입 가능 여부, 지도, 놀이 활동, 각종 편의시설, 날씨, 사진 등이며 페이스북을 연계하여 이용객의 의견 조사·수집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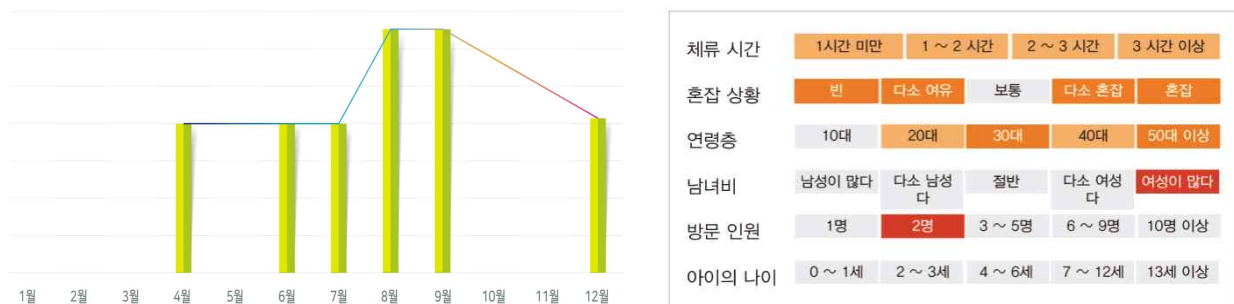
그림 9. 영국의 해수욕장 안내 정보 웹사이트



자료: 영국의 해수욕장 정보 웹사이트 <https://www.thebeachguide.co.uk/>, 2017. 7. 13. 검색

- 일본도 해수욕장의 계절적 이용 패턴과 체류시간, 혼잡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림 10. 일본 나가하마 해변공원 휴게시설의 방문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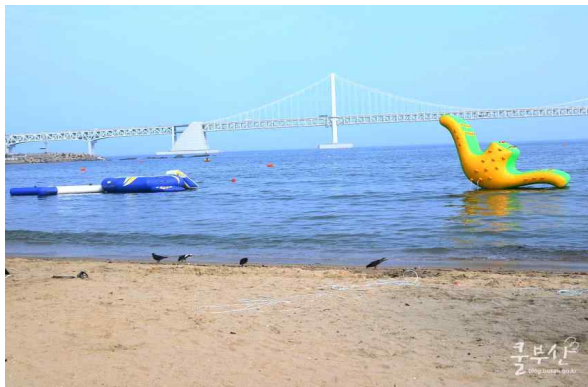
자료: www.jalan.net/kankou/spt_guide000000178451/, 2017. 7. 19. 검색

- 국내 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광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해수욕장의 혼잡도, 주변 연계 관광자원, 해수욕장의 유형, 이용객 경험 등을 소개함으로써 연안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수욕장 놀이시설 보급을 통한 놀이문화 다변화

- 국내 해수욕장은 유영활동 외에 다양한 놀이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놀이시설을 보급하여 이용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이나 유럽은 해변이나 배후공간을 활용하여 풀장, 미끄럼틀, 마리나, 기타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경험의 질을 높이고 있음
- 국내에서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상 슬라이드, 시소 슬라이드, 경기대 등의 놀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11. 국내 해수욕장 놀이시설 설치·운영 사례



자료: (좌)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광역시 공식 블로그. <http://blog.busan.go.kr/4888>, 2017. 7. 14. 검색
(우)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연합뉴스(2017.07.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30/02000000000AKR20170630119200051.HTML?input=1195m>, 2017. 7. 14. 검색

- 해수욕장 놀이문화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바다나 모래 같은 자연환경을 1차원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놀이기구 등의 즐길 거리와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해변 공간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그림 12. 해외 해수욕장 위락편의시설 조성사례(놀이시설, 해변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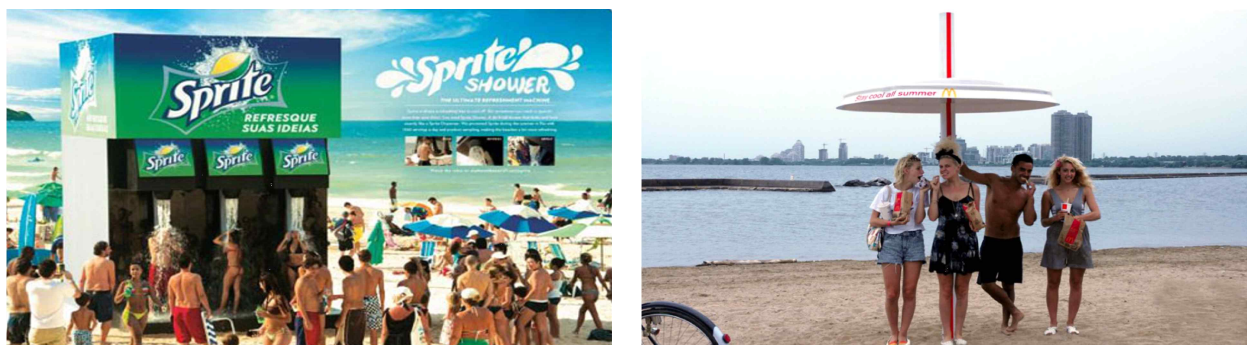
자료: (좌), (중) 미국 마이애미 해변, 직접촬영 (우) 불가리아 알베나 해수욕장 도서관

<http://sofiacitylibraryevs.blogspot.kr/2013/07/beach-library-in-albena-now-bookworms.html>, 2017. 7. 14. 검색

■ 기업 마케팅을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

- 현행 해수욕장법 체제 상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계획이 부족하므로 지자체별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용하는 수익창출사업을 마련해볼 수 있음
-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통신, 음료, 자동차 기업 등과 협력하여 기업 마케팅이나 공익광고 공간으로 해수욕장을 활용하고 있음
-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식음료, 전자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홍보하는 일환으로 샤워시설, 놀이시설,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업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음

그림 13. 해수욕장 기업 마케팅 사례



자료: (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해변 스프라이트 샤워시설

<http://marketinginnovation2020.blogspot.kr/2013/02/sprite-goes-beach-marketing.html>, 2017. 7. 14. 검색

(우) 캐나다 해변 맥도날드 그늘막 <http://juxtaproductions.com/project/mcd/>, 2017. 7. 14. 검색

- 해수욕장은 워터파크와 달리 이용객 수를 관리하지 않아 놀이기구,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므로 민간 기업의 마케팅 이벤트는 이용객 불편해소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업의 홍보비용은 지자체의 해수욕장 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의 예산으로 활용 가능함

■ 해수욕장 이용의 다계절화 유도

- 국내 해수욕장은 하계 휴가철을 중심으로 관광활동이 이루어져 계절적 편중현상이 두드러짐. 이로 인해 해수욕장의 혼잡과 과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용 시기 분산을 통해 연중 해수욕장 및 주변 연안지역 관광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해수욕장 이용의 다계절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지역관광의 틀 안에서 해수욕장을 지역 주민의 해양휴양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함
 - 일부 지자체는 경관이 뛰어나거나 접근성이 우수한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양문화공원, 해변산책로, 캠핑장, 야외 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음
- 한편 여름에만 대형 이벤트나 축제 등 행사를 개최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역의 인문사회자원을 활용한 축제 및 이벤트 등을 연계하여 해수욕장 공간을 사계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해수욕장은 대부분 어촌마을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된 지역은 환경교육 및 생태체험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함

■ 해수욕장 이용객 매너교육 실시

- 매년 휴가철이 되면 해수욕장 내 무분별한 음주행위, 성범죄, 쓰레기 무단투기,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음. 이러한 무질서와 불법행위는 해수욕장 이용객 만족도 저하를 초래함
- 해수욕장 이용의 체질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피서객을 대상으로 하는 매너교육이 필요함.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책자 형태의 자료는 물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놀이형태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를 보면 해수욕장 매너와 관련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용객의 호기심을 자극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내에서는 한국필립모리스 등에서 매년 바다사랑 캠페인을 통하여 해수욕장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어야 할 것임

그림 14. 해수욕장 이용객 대상 매너교육



자료: (좌) 미국 뉴저지 해수욕장 매너 관련 애니메이션 영상

http://www.nj.com/news/index.ssf/2016/08/beach_etiquette_101_ten_dos_and_donts_for_your_tri.html, 2017. 7. 1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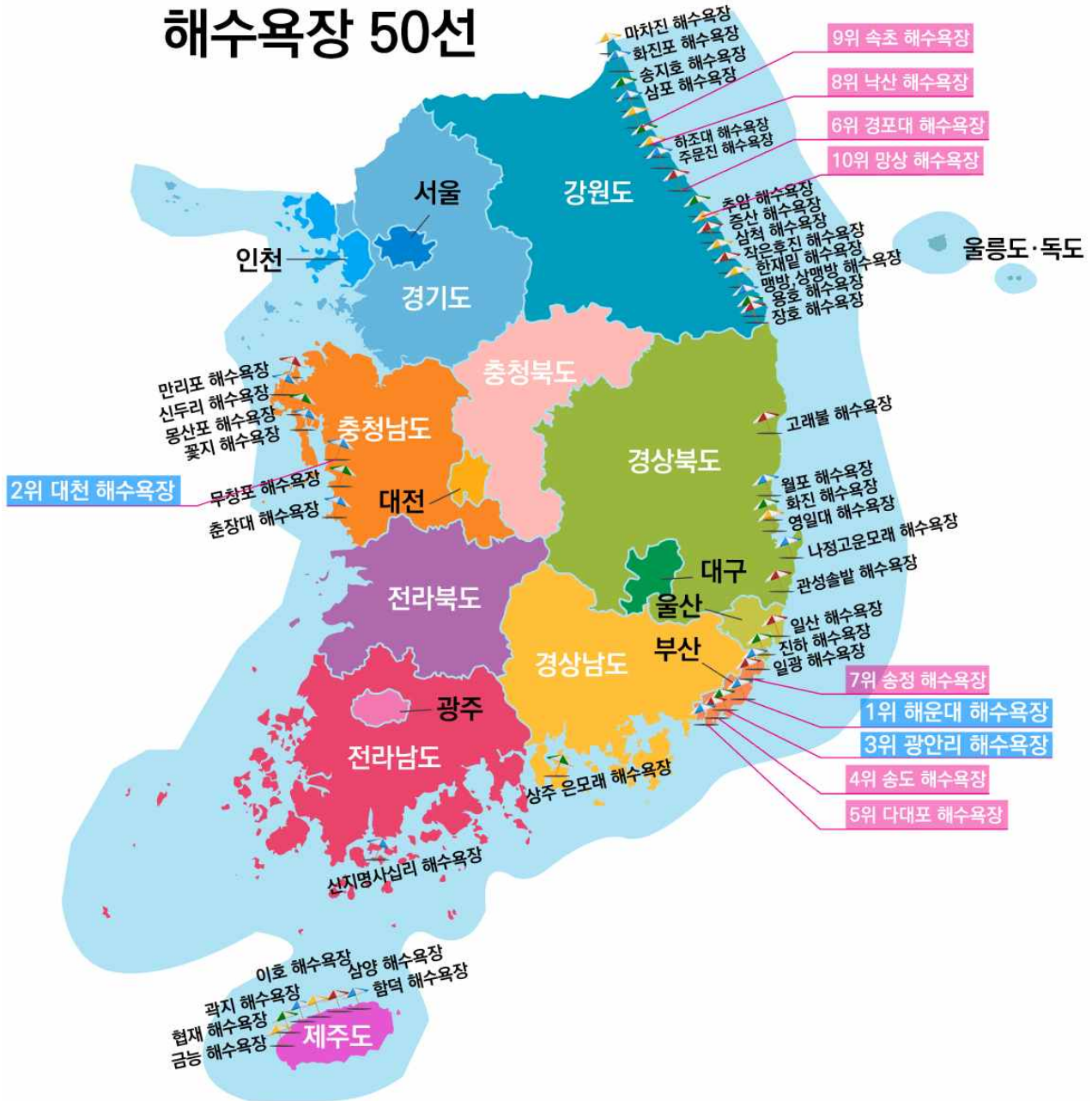
(우) 한국필립스 바다사랑 캠페인 <http://www.cleanbeach.co.kr/>, 2017. 7. 14. 검색

부록 : 2016년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은 해수욕장 50선

순위	해수욕장	위치
1	해운대	부산 해운대구
2	대천	충남 보령
3	광안리	부산 수영구
4	송도	부산 서구
5	다대포	부산 사하구
6	경포	강원 강릉시
7	송정	부산 기장군
8	낙산	강원 양양군
9	속초	강원 속초시
10	망상	강원 동해시
11	영일대	경북 포항시 북구
12	춘장대	충남 서천군
13	일산	울산 동구
14	월포	경북 포항시 북구
15	무창포	충남 보령시
16	함덕	제주 제주시
17	협재	제주 제주시
18	삼척	강원 삼척시
19	맹방	강원 삼척시
20	신지명	전남 완도군
21	장호	강원 삼척시
22	이호	제주 제주시
23	추암	강원 동해시
24	만리포	충남 태안군
25	화진포	강원 보성군
26	진하	울산 울주군
27	용화	강원 삼척시
28	임랑	부산 기장군
29	송지호	강원 고성군
30	고래불	경북 영덕군
31	주문진	강원 강릉시
32	일광	부산 기장군
33	꽃지	충남 태안군
34	곽지	제주 제주시
35	관성솔밭	경북 경주시
36	금능	제주 제주시
37	삼양	제주 제주시
38	몽산포	충남 태안군
39	중산	강원 삼척시
40	작은후진	강원 삼척시
41	상주 은모래비치	경남 남해군
42	리조트	강원 동해시
43	마차진	강원 고성군
44	상맹방	강원 삼척시
45	나정고운모래	경북 경주시
46	한재밀	강원 삼척시
47	하조대	강원 양양군
48	삼포	강원 고성군
49	신두리	충남 태안군
50	화진	경북 포항시

자료: 2016년 기준.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16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수욕장 50선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자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방류용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화',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대 바자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아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을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알리바바,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URL : <http://www.kmi.re.kr/>